

延邊方言의 <하오체>

오춘희 *

1. 머리말
2. 문제제기
3. 선행연구
4.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5. '-오/소'의 출현환경
6. 문체법
 - 1) 평서문
 - 2) 의문문
 - 3) 명령문(하오), 권유문(하기오)
7. 상대경어법
 - 1) 상대경어법(하오)
 - 2) 상대경어법(하시오)
8. 맷음말

1. 머리말

본고의 연구목적은 延邊方言¹⁾ 하오체의 용법을 共時的 관점에서 밝히는 데

* 日本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 博士課程.

1) '延邊方言/延吉方言'이란 中國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 쓰이는 中國語를 除外한 한국어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延邊은 延吉市, 圖們市, 龍井市, 瑲春市, 和龍市, 敦化市, 汪清縣, 安圖縣을 포함하는데, 延吉市가 延邊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전학석(1988:153)에 의하면, '延邊方言'은 六鎮方言(경신, 반석, 영안, 밀강, 양수, 월청, 개산둔, 삼합)과 咸鏡北道方言(六鎮方言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다. 한편 박경래(2003)에 의하면 延邊 정암촌은 1938년에 이주한 충청북도 출신 조선족들에 의해 조성된 마을로, 1960년 이후 충청북도 이외 출신 조선족(함경북도 출신 조선족) 일부가 정착한 이래 현재에

있다. 〈하오체〉의 형태적인 측면에 차안해 한국어(서울방언)의 하오체 용법과 비교함으로써 延邊方言의 (語末/終結)語尾의 活用形·文體法과 相對敬語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²⁾

2. 문제제기

서울방언에서 〈하오체〉가 쇠퇴함에 따라³⁾ 현재 외국드라마나 영화의 번역이 아닐 경우 실제 생활에서 〈하오체〉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다.⁴⁾ 〈하오체〉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하오체〉의 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通時的 연구에서 〈하오체〉 어미의 생성과정에 대해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통시적 해석은 그렇다 친다면, 상대경어법의 쓰임은 어떠하였을까? 이는 방언을 대조하여 다루는 연구자 모두에게 의문으로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에 의하면 정암촌은 충청북도 방언이 기층에 자리 잡고 있다 고 할 수 있으나 함경북도 방언의 영향도 보이며, 혼합형과 변이형이 사용되는 특이한 양상도 보인다고 했다. 六鎮이란 함경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富寧, 慶興, 慶源, 穩城, 鐘城, 會寧의 여섯 진을 말한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편찬부, 1991:247). 그런데 郭忠求(2000:327) 는 六鎮 방언을 富寧을 제외한 다섯 군에서 쓰이는 지역어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기법의 차이는 논문의 일관성을 고려해, 한자 혹은 한국의 표기법으로 통일한 경우가 있음을 밝힌다.

- 2) 화자는 종결어미에 의지하여 청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체법이란 보통 자기의 생각을 평범하게 전술할 수 있고 물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을 시키거나 같이 행동하기를 권유할 수도 있는 문장종결법을 가리켜 말한다. 상대높임법이란 화자가 특정한 종결어미를 씀으로써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말한다(남기심 · 고영근, 1993:331-343). 문체법을 권재일(2004:7)은 ‘의향법’이라 하였는데, 의향법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늘 청자높임법과 겹쳐 실현된다고 하였다. 청자높임법(상대높임법)을 이익섭 · 이상억 · 채완(1997:249-259)은 ‘상대경어법’이라 하였으며, 상대경어법은 문장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그 문장을 듣는 청자에 대해 언어적으로 대처하는 경어법이라 했다. 본고에서 문체법은 남기심 · 고영근(1993)의 용어를, 상대경어법의 특징이라고 말하였으나 권재일(2004)이 언급하였듯이 양자는 서로 겹쳐 실현되므로 언제나 상관관계를 맺고 나타난다.

3) 서울 방언에서 〈하오체〉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정수(1984:218)가 밝힌 바 있다.

4) 爾弼在(2009)가 언급한 바 있다.

남는 부분이다. 알다시피 延邊方言에서는 ‘하오’가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 미디어의 보급과 더불어 연변지역의 언어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전통적 方言話者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소멸위기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본론에 앞서 한국어의 〈하오체〉 어미, 문체법을 확인하기로 한다. 梅田(1991: 98)은 하오체의 어미가 ‘-소/오:우’이며,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권유형(청유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⁵⁾ 반면 이익섭·이상억·채완(1997:198)은 하오체의 어미에 ‘-으오’와 ‘-읍시다’가 있는데, ‘-으오’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이 가능하고 ‘-읍시다’는 권유형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전자는 하오체의 어미 ‘-소/오:우’에 의한 권유형이 가능하다고 한 데 반해, 후자는 권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표 1-1〉과 〈표 1-2〉 참조).

〈표 1-1〉『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2*}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권유형
합쇼체	습니다/ㅂ니다	습니까/ㅂ니까	으십시오	읍시다
하오체	소/오:우	소/오:우	소/오:우	소/오:우
하게체	네:을세:으이	나:은가	게	세
해라체	다	니:느냐,으냐	어라	자
해요체	어요	어요	어요	어요
해체	어	어	어	어

* 梅田(1991:98).

〈표 1-2〉『한국의 언어』^{*}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권유형
합쇼체	막습니다	막습니까	막으십시오	막으십시오
하오체	막으오	막으오	막으오	막읍시다
하게체	막네	막나	막게	막세
해라체	막는다	막느냐	막아라	막자
해요체	막아요	막아요	막아요	막아요
해체	막아	막아	막아	막아

* 이익섭·이상억·채완(1997:198).

5) 본고에서는 권유형으로 통일함.

그렇다면,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 이를 알고자 <하오체>의 어미로 알려져 있는 '-오, -소, -으오'로 검색하였는데, 정리한 내용의 일부를 적으면 <표 1-3>과 같다.⁶⁾

<표 1-3> 하오체 어미와 문체법

평서	그대를 사랑하오.
의문	그것이 말이 되는 것 같소?/얼마나 심려가 크시오?
명령	이틀의 말미를 줄 것이니 그때까지 빌린 돈을 꼭 갚으오.

<표 1-3>에 정리된 바를 참조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미의 활용은 예문을 통해 母音語幹과 子音語幹에서의 활용형은 알 수 있으나, 어간은 제시된 예문이 없어 그 형태를 알기 힘들다.
- ② 문체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이 있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일본 小學館의 『朝鮮語辭典』에는 상술한 문체법 외에 ‘권유법’도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어 記述 상의 모순이 있다.⁷⁾ 후술하겠지만, 延邊方言에는 권유형이 존재한다.
- ③ 우선 ‘述部의 統合形(活用形)=語幹+先語末語尾+語尾’와⁸⁾ 같은 분석방식을 취하였는데, 어간을 ‘하-’로 사용하며 적는다면 <표 1-3>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6) 어미 '-오, -소, -으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 '-오¹⁹, -소²⁰, -으오⁰²'로 등재되어 있다.

7) 권유형이 있다고 하나, 예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어간의 위치에 올 수 있는 통사범주에는 용언(형용사·동사)과 지정사, 존재사가 있다. 선어말어미(접사)에 올 수 있는 문법요소로는, 현대어로는 시체를 나타내는 것, 경어를 나타내는 것 등이 있는데, 존경은 주어에 대한 경어를 나타내고(福井, 2013:165), 어미는 청자에 대한 경어를 나타낸다. 한편 중세어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선어말어미에 올 수 있는 문법요소는 더 많아지는데, 상세한 내용은 福井(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고에서는 논의를 위하여 어미 앞에 '-시-'를 선행시킨 형태만 다룬다.

- (a) 語幹+語尾: 하오(사랑하오/같소/갚으오)
 (b) 語幹+시+語尾: 하시오(크시오)

즉 〈하오체〉에는 (a)와 같은 ‘하오’의 경우와, (b)와 같이 어간과 어미사이에 ‘-시-’가 삽입된 ‘하시오’의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하오체〉의 문법범주에서 다루어진다. 高永根(1974b:73-74)에는 “좀 나오시오 / 각오하시오 / 그쯤 아시오”와 같은 예문들이 모두 하오체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논문에서는 선어말어미 ‘-시-’의 유무와 무관히 ‘하오’와 ‘하시오’를 모두 〈하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후술하겠듯이 延邊方言의 경우 (a)와 (b)는 상대경어법 상 서로 다른 등급임이 현지조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우선 ‘순수-구어 자료’ 연구와 ‘준-구어 자료’ 연구로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전자인 ‘순수-구어 자료’를 다룬 연구로는 최명옥(2000),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박경래(2003), 방채암(2008), 정향란(2010),¹⁰⁾ 엄춘영(2010),¹¹⁾ 서향란(2012), 김선희(2013), 곽충구(2014) 등의 연구가 있고,¹²⁾

9) 권재일(2004:4)은 ‘순수하게 말해진 것을 전사한 것’을 ‘순수-구어 자료’라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바로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반면 연극·영화·방송드라마의 대본은 ‘말해지기 위해 쓰인 자료’로 보고, 이들은 순수-구어 자료와는 엄격히 차별되기 때문에 ‘준-구어 자료’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정향란(2008)이 있으나, 정향란의 후속연구(2010)에서 이전 연구를 수정·보완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후속연구를 참고하였다.

11) 엄춘영(2006)이 있으나 엄춘영의 후속연구(2010)에서 다소 수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후속연구를 참고하였다.

12) 각 논문의 상대경어법 등급은 다음과 같다. 최명옥(2000)과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은 ‘하압소체, 하오체, 해라체’로, 박경래(2003)는 ‘예예체, 야야/양양체, 응응/야자체’로, 정향란(2010)은 ‘존대, 평대, 하대’로, 방채암(2008)은 ‘아주높임/합소체, 보통높임/하오체, 조금높임/하게체, 안높임/해라체’로, 엄춘영(2010)은 ‘존대, 평대, 하대’로, 서향란(2012)은 ‘합쇼체, 하오체, 해라체, 반말’로, 김선희(2013)는 ‘예예체, 양양체, 응응’

후자인 ‘준-구어 자료’를 다른 연구로는 김순희(2014)의 연구가¹³⁾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비록 상대경어법 등급의 명칭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방체암(2008), 서향란(2012), 곽충구(2014)는 4등급 체계로, 나머지는 거의 3등급 체계로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을 참고하여 잠정적으로 3등급 체계로 보고 ‘합쇼체, 하오체, 해라체’로 불러 분석하기로 한다.¹⁴⁾ 자료성격의 특징상 여기서는 ‘순수-구어 자료’에서 보이는 문제점만 논의하고, ‘준-구어 자료’의 내용은 필요시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앞서 2장에서 ①어미의 활용형, ②문체법, ③상대경어법으로 나누어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延邊方言의 선행연구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①의 경우 ‘근어간’ 활용형이 조금 불투명한 정도이고, ②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2014. 10. 20 검색)에는 권유형(청유형)이 없지만, 延邊方言에는 ‘하기오/하교’와 ‘하기시오/하기쇼’와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선행연구는 어느 한쪽만 다루거나 어미의 교체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③상대경어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 특히 방언의 ‘하오’와 ‘하시오’ 중, ‘하시오’는 논문에 따라 〈하오체〉로 보는 견해와, 〈합쇼체〉로 보는 견해가 있어 연구결과 상의 불일치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하시오/하쇼’와 ‘하(기)시오/하(기)쇼’는 異形態로 존재하는데, 선행연구를 보면 어미 ‘-시오’만 다루고 ‘-쇼’를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며, 논문에 따라서는 ‘-시오’를 명령형에서는 하오체로,

체’로, 곽충구(2014)는 ‘하압소체, 하오체, 반말, 해라체’ 등으로 설정하였다.

- 13) 상대경어법 등급은 ‘존대(하소서체, 하십시오체, 해요체), 대등(하오체, 하게체), 하대(해체, 해라체)’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은 사전류, 문법서, 연변지역 현대작가들이 쓴 소설과 희곡 등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고 하는데, 필자가 조사한 방언자료와 비교할 때 실제 방언형과 다른 형태도 보인다.
- 14)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은 ‘하압소체’로 불렀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의 용어를 따라 ‘합쇼체’로 바꿔놓았다. 본고에서 확인되겠지만 延邊方言의 경우, 엄밀히는 한국의 ‘하오체’에 비해 사용범위가 훨씬 넓으므로 이 용어가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내용은 박경래(2003)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권유형에서는 합쇼체로 보는 등의 모순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적절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4.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필자의 직관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지 방언조사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아래에 조사년, 성별, 생년, 소속방언, 조사시 주소, 과거 직업의 순서로 적는다. 소속방언은 부모의 고향 혹은 조부의 고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2009年 図們調查→A氏(女, 1929年, 鐘城, 図們 月晴, 農業)

2006年 延吉調查→B氏(男, 1935年, 慶源, 延吉 東光村, 農業)

C氏(女, 1935年, 穩城, 延吉 明新村, 教師)

2005年 延吉調查¹⁵⁾→總30名(男14名, 女16名), 話者調查時住所: 延吉

방언화자는 일반적으로 그 지방에서 생업을 대표하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어적 직관이 필요한 문법관계의 조사에서는 일부러 교직경력이 있는 사람을 화자로 선정하기도 하는데,¹⁶⁾ 이를 참고로 방언화자를 선정하였다. A氏, B氏, C氏는 모두 六鎮方言 화자인데 A氏가 가장 보수적인 방언형을 구사하였다. B氏는 학교 문법의 영향을 받아 가끔 표준어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방언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으며, C氏는 초등교사 경력자로 당시 학교 내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였고 특히 六鎮方言語尾와 (延邊) 표준어의 차이를 가르쳐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단, C氏의 경우 다양한 어미가 나타나 고민하던 중 A氏를 만난 후로 六鎮方言의 전통적인

15) 총 30명의 방언화자 중 20대 좌우의 2명이 龍井, 1명이 汪清 출신 화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延吉 출신 화자이다. 방언화자는 外住歷이 없는 화자를 선정하려 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포기한 점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17명은 外住歷이 없는 화자이다. 필자의 출생지는 연길이고 28년 동안 줄곧 연길에서 생활했고 그 후 渡日하였다. 소속방언은 부친이 會寧이고 모친이 明川이다.

16) 小林·篠崎(2005:13-16)를 참조.

어미와 상대경어법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2006년, 2009년의 방언조사는 조사표에 따른 조사와 면접조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⁷⁾ 구체적으로는 조사자가 방언화자와 면접하여 청취하는 형식을 택했다. 2005년도의 조사는 방언화자의 언어적인 직관이 중요하다고 고려되어 도시방언의 일반성을 알고자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self administrated survey)이 아닌, 조사원 기입 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를 이용하였으며 질의 응답에서 수정은 최대한 피하고 방언화자가 발화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형식을 택하였다.

조사는 사회방언학에서 상대경어법 등급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연령, 성별, 계층, 친밀도 등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였다. 여기서 A氏, B氏, C氏는 체계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小人數調査에 속한 반면, 延吉 30명의 조사는 언어주체의 속성차에 주목하는 사회방언학적인 多人數調査에 속한다. 전자는 전통적 방언의 모습을, 후자는 延邊方言의 共通語化의 모습을 조사하기 위함이고, 이 두 방식을 병용한 것은 지역적 변이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아래 분석에서는 전통적 六鎮방언화자로 판단되는 A氏를 중심으로 하되, 조사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도시방언(延吉方言)에서 어떠한 언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5. ‘-오/소’의 출현환경

用言語幹은 모음어간, 자음어간, 근어간과 지정사 ‘-이-’로 나눠 분석하면 그 전체의 활용형을 기술할 수 있다. 조사에서 확인된 활용형을 아래의 <표 2-1>에 제시한다.

17) 2006년부터 2009년의 調査票는 당시 동경대 특임교수로 재임하셨던 서울대 최명옥 교수님께서 주신 ‘존대법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표 2-1〉 용언어간 활용형의 분석

	품사	어간	평서	의문	권유	명령
모음어간 뒤	동사	가- (去)	가오	가오?	가기오	가오!
	형용사	크- (大)	크오	크오?		
자음어간 뒤	동사	먹- (食)	먹소	먹소?	먹기오	먹소!
	형용사	곱- (麗)	곱소	곱소?		
근어간 뒤	동사	팔- (賣)	파오	파오?	팔기오	파오!
	형용사	멀- (遠)	며오	며오?		
지정사 뒤	명사+이	집 (家)+이	집이오	집이오?		
		아니- (否)	아니오	아니오?		

즉, 語尾部는 ‘-오’와 ‘-소’ ‘-기오’의 세 가지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평서 · 의문 · 명령형의 모음어간과 근어간(이 경우 語幹末音 르이 탈락함) 뒤에서는 어미부가 ‘-오’로 나타나고, 자음어간 뒤에서는 어미부가 ‘-소’로 나타나며, 지정사 ‘-이-’ 뒤에서는 어미부가 ‘-오’로 나타난다.

모음어간 뒤의 ‘-오’는 ‘-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음어간 뒤에서는 ‘-소’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¹⁸⁾ 지정사 ‘-이-’ 뒤에서는 ‘-이오’, ‘이요’와 같은 교체형을 가지며 후자가 더 일반적이다. 즉, ‘집이요[cipijo]’,¹⁹⁾ ‘산이요[sanijo]’로 확인된다. ‘아니오’는 [anio]가 鼻母音인 [aŋio]로 발음되며 /n/가 탈락되기도 한다. 문장은 수행역양과 문맥에 의해 구별된다. 현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 방언의 ‘막으오’와 같은 통합형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⁰⁾ 형용사에 의한 명령형과 권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지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8) ‘순수-구어 자료’를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소’가 확인되지 않으나, ‘준-구어 자료’를 다른 김순희(2014)에 따르면 ‘-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19)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소표기를 원칙으로 적는다. 그 기호는 다음과 같다. 母音: /a ə o u ɨ i e ε/ 半母音: /j w/ 子音: 平音 /p t k c/ 硬音/p' t' k' c' s'/ 激音 /pʰ tʰ kʰ cʰ/ 鼻音 /m n ŋ/ 流音 /l/ 摩擦音 /s h/

20) 한편 이 어미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영근, 1974b).

권유형의 ‘-기오’는 ‘-겨오’, ‘-게오’, ‘-교’로 나타나기도 한다.²¹⁾ 권유형 어미 ‘-오’는 선어말어미 ‘-기-’를 반드시 선행시키는데 이는 서울방언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기-’는 전통방언 화자의 경우 ‘-게-’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후자가 더 정중한 느낌이 들고 구형인 것 같다. 延吉方言 조사에서는 ‘-기-’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표 2-2〉 공원에서 만나자

※ 延吉方言調査 30명

	남성	兄/姉에게		여성	남성	父母에게		여성
1	17歳	(-mnida)	-kjo○	17歳	17歳	(-mnida)	-kisjo○	
2	20歳	-kio△	(-mda)	20歳	20歳	-kisjo○	(-mda)	17歳
3	20歳	(-o)	-kio△	21歳	20歳	-kisjo○	(-mda)	20歳
4	21歳	-kjo○	-kisjo	22歳	21歳	-kisjo○	-kisjo○	21歳
5	24歳	-kjo○	-kio△	22歳	24歳	-kisjo○	-kisjo○	22歳
6	25歳	-kjo○	-kjo○	28歳	25歳	(-ps'ida)□	-kisjo○	22歳
7	33歳	-kio△	-kio△	37歳	33歳	(-ps'ida)□	-kisjo○	28歳
8	40歳	-kio△		42歳	40歳	(-ps'ida)□	(-sips'io)	37歳
9	49歳	-kjo○	-kio△	42歳	49歳	(-ps'ida)□	(-ps'ida)□	42歳
10	49歳	-kjo○	-kjo○	47歳	49歳	(-sicijo)	-kisjo○	42歳
11			-kjo○	48歳			-kisjo○	47歳
12	52歳	(-ci)	-kjəu△	50歳	52歳	(-kips'o)	-kjəu△	48歳
13	54歳	(-əjo)	-kio△	51歳	54歳	(-mnida)	-kisjo○	50歳
14			(-ilk'e)	57歳				51歳
15			-kio△ -keo△	58歳			(-keps'o)	57歳
16			-ps'io	59歳			(-ps'ida)□	58歳
17	61歳	-kio△ -keo△			61歳	(-ps'ida)□		
18	62歳	-kio△			62歳	-kisjo○		
-교kjo○, -기오/겨오/개오kio/kjəu/keo△				-기쇼kisjo○, -ㅂ시다 (-ps'ida)□				
※() 기타 어미. 기타 어미는 의문형 혹은 간접표현의 어미임.								

* 備考 : ‘兄/姉에게’의 경우 〈하오체〉인 ‘-기오’, ‘-교’가 교체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겨오’, ‘-게오’는 아주 적게 조사되었다. ‘부모에게’의 경우 〈합쇼체〉인 ‘-기쇼’가 일반적인데, 남성의 경우 ‘-ㅂ시다’도 평행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ㅂ시다’가 〈하오체〉로 다뤄지나, 調査자료에 의하면, 이 방언의 경우는 〈합쇼체〉이다. ※() 기타 어미는 〈합쇼체〉혹은 〈하오체〉가 되는데, 본고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21) 정향란(2010:107), 김선희(2013:91), 김순희(2014:257)의 연구에서는 ‘-기요’가 확인된다.

6. 문체법

문체법의 하위범주에는 평서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이 있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평서문

평서문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확인된다.

- ① (a) 지금 파리 재비르 하오.(지금 파리 잡이를 하오.)
- (b) 어제 파리르 자밭소.(어제 파리를 잡았소.)
- (c) 내례 파리 재비르 하畋소.(내일 파리 잡이를 하겠소.)
- (d) 이 꼬지 곱소.(이 꽃이 곱소.)
- (e) 이게 호미요.(이것이 호미이오.)
- (f) 따다는거 아우.(다르다는 것을 아오.)
- (g) 이런 마리 일소.(이런 말이 있소.)

①의 (a), (b), (c)는 시제를 나타내는 평서문의 예문이다. (a)는 화자의 현재 행동을, (b)는 화자의 과거에 대한 사실을, (c)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a)~(c)는 일인칭 주어문, (d)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삼인칭 주어문, (e)는 삼인칭 명사 술어문이다. (f)는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일인칭 주어문, (g)는 자기가 알고 있는 既知의 정보를 전하는 삼인칭 주어문의 예문이다.

서울방언의 경우 ‘하시오’와 같은 평서문이 가능하나, 전통 六鎮방언화자(A氏)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어미는 ‘-꾸마’, 延吉방언화자는 ‘-ㅁ다’가 보편적이다.²²⁾

22) 평서문으로 “할아버지는 집에 계시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경우, 六鎮방언화자는 ‘아바이 집에 있으꾸마’로, 延吉방언화자는 ‘아바이 집에 있음다’가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2) 의문문

(1) 의문문(하오)

의문문은 청자에게 어떠한 정보에 대해 질문하는 문장인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확인된다.

- ② (a) 당마다르 가겠소?(장마당으로 가겠소?)
- (b) 이거 아오?(이것을 아오?)
- (c) 어디르 가오? (어디로 가오?)
- (d) 무스개 그리 돋소?(무엇이 그렇게 좋소?)

②의 표현은 모두 A氏가 사위에게 말한 표현으로 이인칭 주어문의 예문이다.

(2) 의문문(하시오)

- ③ 형님 어디르 가시오?

③은 형님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표현으로서 이인칭 주어문의 예문인데 방언에서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의문문의 예는 많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예를 들어 六鎮방언화자의 경우는 ‘-ㅁ등?’、延吉방언화자의 경우는 ‘-ㅁ끼?’와 같은 어미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3) 명령문(하오), 권유문(하기오)

편의상 명령문과 권유문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의 의도대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고, 권유문(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 제안하는 문장이다.²³⁾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 단독인 데 반해 권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의 모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권유문의 경우를 ‘一人稱複數’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파악하였다.

23) 남기심 · 고영근(1993:352-356)을 참조.

(1) 명령문(하오), 권유문(하기오)

- ④ (a) 촌자이 우리 지브루 가티 가오.(촌장 우리 집으로 같이 가오)
 (청자에게 화자 외의 사람과 같이 가라고 제안하는 문장으로, 화자는 같이 가지 않음)
- (a') 촌자이 우리 지브루 가티 가게오.(촌장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가자고 청하는 문장으로, 화자도 같이 감)
- (a'') 나두 가티 가게오.
 (출발하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다는 화자 자신의 의지를 전함)
- (b) 이 해미 식끼저네 빨리 가티 와 먹소.(이 반찬이 식기 전에 빨리 같이 와 먹소.)
 (청자에게 자신이 아닌 사람과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문장으로, 화자는 먹지 않음. 혹은 화자는 이미 먹고 있으면서 청자를 청하는 경우도 가능함)
- (b') 이 해미 식끼저네 빨리 가티 와 먹기오.(이 반찬이 식기 전에 빨리 같이 와 먹읍시다.)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먹자고 청하는 문장으로, 청자도 같이 먹음)
- (c) (이르) 그만 하오.((일을) 그만 하오.)
 (청자에게 일을 중지하기를 요청함. 이 경우 화자는 일을 하지 않음. 혹은 화자는 일을 하나, 청자에게 중지하기를 요청함)
- (c') (이르) 그만 하기오.((일을) 그만 합시다.)
 (화자가 청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청자에게 같이 일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으로, 화자도 함께 일을 중지함)
- (d) 언니 조용하우.(언니 조용하오.)
 (화자와 관계없이 청자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으로, 화자는 이미 조용히 있는 상태. 혹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데, 청자가 떠들기에 청자에게 조용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임)
- (d') 언니 조용하기우.(언니 조용합시다.)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조용하자고 청하는 문장으로, 화자/청자 함께 조용해짐)

④의 (a), (b), (c), (d)는 명령문의 예문이다. (a'), (b'), (c'), (d')는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권유문으로 일인칭복수를 나타낸다. 한국어의 '-ㅂ시다'의 용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방언으로 볼 때 '-ㅂ시다'보다는 낮고, '-자'보다는 높은 등급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²⁴⁾ 여기에서 권유의 뜻은 -기

(ki)-에 의해 나타난다. -ki-는 공동의 뜻이 있지만, (a")와 같이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152)에 의하면, '-기오'는 '-기-'와 '-오'로 분석되는데 '-기-'는 존대의 권유법(청유법) 어미 '-기 입소'에도 들어 있으며, 서남방언의 선어말어미 '-겨-'와 함께 존재사 '겨-(在)'에 소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²⁵⁾

정용호(1988:242)에 의하면, 함경도방언에서²⁶⁾ 추김의 문법적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기오'와 같은 토(終結語尾)라 한다. 한편 咸南에서 쓰이는 '-기오'는 咸北이나 六鎮 방언에서와는 달리 추김의 뜻은 없고 다만 '나도 가겠다'는 자신의 의향을 남에게 알리는 의미로 쓰인다(황대화, 1988:142).²⁷⁾

한국어에서는 연장자에게는 마음대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듯이 A氏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이 보인다. 즉 방언 조사에서 명령형을 물으면 의문형으로 대답하고, 재삼 명령형을 부탁하면 복합동사 '갔다오오', '해주오'로 대답하였다. 문장이 길어지면 공손(정중)의 뜻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또한 그러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2) 명령문(하시오), 권유문(하기시오)

우선 조사자료에서 확인되는 어미 활용형을 아래에 제시한다.

-
- 24) 이익섭·이상억·채완(1997:195)에 따르면 하오체의 권유형 어미가 '막읍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국의 경우이고, 延邊方言에서 '-ㅂ시다'는 <표 2-2>에서 확인되듯이 부모에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합쇼체에 해당한다. 여기서 번역문을 '-ㅂ시다'로 적었지만 엄밀히 번역하면 이러한 표현은 합당치 않다. '-ㅂ시다'는 전통적인 六鎮방언화자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기타 방언화자(延吉 30명, <표 2-2> 참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학교문법의 영향으로 봄이 좋을 듯하다.
 - 25) 고광모(2006:69)에 의하면 '-깁소'는 '-게 ㅎ-'의 명령형인 '-게 흡소-'에서 'ㅎ'가 탈락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시적 분석은 필자의 얇은 학문적 지식으로 인해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중의 연구에 기약한다.
 - 26) 회령, 온성, 새별(慶源), 은덕(慶興) 지방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전 지역과 함경남도와 兩江道에서 쓰이는 방언을 말한다(정용호, 1988:11).
 - 27) 그 예문으로 '나두 가기오'는 함남에서, '빨리 하기오', '가기오'는 六鎮에서 쓰이고 있다고 한다.

	품사	명령	권유
모음어간 뒤	가-(去)	가시오/가쇼	가기시오/가기쇼
자음어간 뒤	숨-(隱)	숨으시오/숨으쇼	숨기시오/숨기쇼
ㄹ어간 뒤	알-(知)	아시오/아쇼	알기시오/알기쇼

즉 어미부는 ‘-(으)시오/쇼’의 교체형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명령형의 모음어간과 ㄹ어간(이 경우 語幹末音 ㄹ이 탈락함) 뒤에서는 어미부가 ‘-시오/쇼’로 자음어간 뒤에서는 ‘-으 시오/으쇼’로 나타난다. 권유형은 모음어간 뒤, 자음어간 뒤, ㄹ어간 뒤에 그대로 ‘-기시오/기쇼’로 나타난다. 여기의 ‘-기-’는 ‘하기오-’의 ‘-기-’와 같다.

아래 ⑤의 예문을 통해 명령문과 권유문을 검토하기로 한다.

- ⑤ (a) 가티 가시오.(같이 가시오.)
- (a') 가티 가기시오.(같이 갑시다.)
- (b) *나두 가시오.
- (b') 나두 가기시오.(나도 갑시다.)
- (c) 천처니 가시오.(천천히 가시오.)
- (c') 천처니 가기시오(천천히 갑시다.)
- (d) 그 물건을 들고 있지 말고 거기에 놓으시오.(허동진, 2006:45)
- (d') 여기 노키시오.(여기에 놉시다.)

⑤의 (a), (b), (c)는 억양에 힘을 주면 명령, 부드럽게 말하면 제안의 뜻으로 가능하다. (a'), (c')는 일인칭복수를 나타내는 예문이다.²⁸⁾ (b'), (d')는 화자가 자기의 의지를 전달하는 문장이며, (b)는 비문이고, (c)는 손님을 배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d)는 김순희(2014: 203)가 제시한 예문에서 따온 것인데, ‘물건을 거기에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한다. 〈표 2-2〉

28) 곽충구(1997:243)에 의하면, 延邊地域의 咸北 吉州·明川 지역 방언에 “káčhi kásigio”는 延吉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계층에서는 ‘기’와 ‘시’가 도치된 ‘가기시오’, ‘보기시오’ 따위 와 같이 말한다고 한다. 市長 등과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가시기오’를 쓴다 한 다(‘시장 동무! 같이 가시기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지역 선행연구에서는 ‘-기시오’만 보이고, 필자의 조사에서도 ‘-기시오’만 확인된다.

‘부모에게’의 부분을 보면 延吉방언화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미로 조사되었다. 다음 ⑥은 명령문의 예문이다.

- ⑥ (a) (A氏가 방언 調査에 온 대학교 선생님에게) 그게 가 만차보시오.
- (b) (손자의 담임선생이 A氏에게) 아즈마이 그런거 걱저하지 마시오.
- (c) (A氏가 촌장에게) 촌자이가두 이거 자시오. 이래디.
- (c') (A氏가 사위에게) 사위두 날래 나와 가티 자시오. 이런소.
- (c'') (A氏가 사위에게) 그런 이거 빨리 나와 자쇼. 난 지금두 이래우.

⑥은 자연발화에서 얻은 말이다. A氏의 과거의 경험담으로 방언조사에 온 대학교 교수님에게 자기가 한 말(방언)이 맞는지 어떤지 불안(걱정표현)하여 선생님에게 (a)와 같이 말했다 한다. (b)는 손자의 학교 행사에 참가했을 당시, 손자의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손자(당시 초등학생)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부탁하니, 담임선생님이 A氏에게 (b)처럼 말했다고 한다. (c), (c'), (c'')는 같은 내용의 말인데 어미의 발음에서 변화가 보인다. 다시 말하면 (c)는 casio이고, (c'')는 casjo이고, 여기에 비해 (c')는 양자의 중간 정도로 들리는 발화인데, 적용한다면 casio가 되겠다. <표 3>에서 보여주듯이 -sio와 -sjo는 自由變異이며 이것들은 異形態라고 생각된다.

<표 3> 이곳에 오라

※ 延吉方言調査 30명

	남성	妻에게	兄/姉에게		夫에게	여성	남성	부모에게		여성
1	17歳		-o	-o		17歳	17歳	-sjo○	-sio△	17歳
2	20歳		-o	(-mda)		20歳	20歳	-sjo○		20歳
3	20歳		-o	-o		21歳	20歳	-sjo○	(-mda)	21歳
4	21歳		-so	-o		22歳	21歳	(-mk'a?)	-sjo○	22歳
5	24歳		-o	-sjo		22歳	24歳	-sjo○	-sjo○	22歳
6	25歳		-o	-o	(-ra)	28歳	25歳		-sjo○	28歳
7	33歳	-o	-o	-o	-sjo○	37歳	33歳	-sjo○ -sio△	-sjo○	37歳
8	40歳	-o	-o		-sio△	42歳	40歳	-sips'i'o□	-sio△	42歳
9	49歳	-o	-o	-o	-sio△	42歳	49歳	(-mnik'a?)	-sio△	42歳
10	49歳	-o	-o	-o	-sio△	47歳	49歳	(-cijo)	-sio△	47歳

11				-o	-sjo○	48歳			(-o)	48歳
12	52歳	-o	-o	-o	-sjo○	50歳	52歳	(-ps'o)	-sjo○	50歳
13	54歳	-o	(-ajo)	-o	-sio△ -sips'io□	51歳	54歳	-sips'io□	-sio△ -sips'io□	51歳
14				-o	-sips'io□	57歳			-sips'io□	57歳
15				-so	(-so?)	58歳			(-mdu?)	58歳
16				-o	-sjo○	59歳			-sips'io□	59歳
17	61歳	-o	-o				61歳	-sips'io□		
18	62歳	-o	-o				62歳	-sjo○		

-오/-소o/so, -쇼sjo○, -시오sio△, -ㅂ시다 -sips'io□, () 기타 어미 ※기타 어미는 의문형 혹은 간접 표현의 어미임.

※ 備考 : ‘妻에게’·‘兄/姊에게’를 보면 〈하오체〉인 ‘-오/소’로, ‘夫에게’, ‘부모에게’의 경우는 〈합쇼체〉인 ‘-시오’와 ‘-쇼’인 교체형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상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명령형의 3등급 체계를 A氏(六鎮)의 경우는 ‘갑소/갑쇼’, ‘가오’, ‘가라’로 볼 수 있는데, 지위가 아주 높은 청자에게는 ‘나가십소/나가십쇼/나가십시오’와 같이 주체높임의 ‘-(으)시-’가 포함된 어미통합체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었다. 이에 반하여 2005년의 延吉方言 조사에서는 ‘가쇼/가시오’, ‘가오’, ‘가라’로 조사되었는데, 주체높임의 ‘-(으)시-’가 포함된 ‘가십시오’도 합쇼체와 병행 사용된다. 문제점은 ⑥에서 확인했듯 A氏에게서 사용빈도는 적으나 ‘-쇼/시오’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161)은²⁹⁾ ‘-쇼’를 합쇼체에서 다루었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을 참고한다면, 나아가 延吉方言의 조사결과와 연관을 지어 검토한다면, A氏는 ‘갑소/갑쇼’와 같이 ‘가쇼’도 합쇼체로 보는 것이 등급 체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전통 六鎮방언화자는 합쇼체에 ‘갑소/갑쇼’를 많이 썼지만, 그렇지 않은 延吉方言(도시방언) 화자에게서는 이에 대응하는 어미로 ‘-ㅂ-’가 탈락된 ‘가쇼 / 가시오’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문법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延邊 和龍市 海蘭村을 조사한 王한석(1996)에 의하면, 40대 이하의 화자들은 전통적인 어미 형태인 ‘-읍소’가 가장 낮은 수준의 ‘존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

29) 例: 빗모개느 애 간다마개 매쇼.

고, '-으시오'가 그 다음 수준의 '존대'를 전달하며, 표준어 형태인 '-으십시오'가 가장 높은 수준의 '존대'를 전달한다고 한다. 필자의 조사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권유형의 3등급 체계는 A氏(六鎮)의 경우에 '가잽소/가깁소', '가게오/ 가기오', '가자'가 일반적이고, 延吉방언화자(2005년 조사)의 경우에 '가기시오/가기쇼', '가기오/ 가교', '가자'가 일반적이었다. 즉, 합쇼체에서 '-ㅂ-'이 탈락된 형태가 도시방언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된 것인데, 이는 명령형의 경우와 같다. C氏에 의하면 '가잽소/가깁소'와 '가기시오/가기쇼'의 차이는 전자에 비해 후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혹은 반드시 예를 지켜야 할 상대에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이기갑(2003:309)에 의하면, 六鎮 방언에는 '-읍소' 외에 '-읍쇼'도 쓰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읍시오'의 축약형으로서 '-읍소'에 주체높임의 안罵음씨끝 '-시-'가 결합된 것이라 한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나가십쇼'에는 주체높임의 문법형태소가 중복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가령 이러한 쓰임이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엄춘영(2010) 또한 어미 '-으쇼', '-기쇼'에 보이는 '-쇼'는 '시+오'의 축약형이라 하였는데, '나가십쇼'를 고려할 때 어미 '-쇼'를 굳이 주체높임의 문법 형태소로 분석해야 하는 이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표 3>에서 보이듯이 '-쇼'는 '-시오'의 교체형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간략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朝鮮語辭典』(上:2052)에는 '-시오(명령형)'가 하오체(같음) 어미로 등재되어 있는데, 『중국조선어실태 조사보고』(1985:147)에서는 방언에서 하오체(같음) '-시오'는 '-ㅂ소'로 대응되어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³⁰⁾ 또한 논문에서는 등급(계정) 불명확현상으로 예를 들면, '가기시오', '갑소', '가깁 소'는 윗사람이나 대등한 사람 간에 통용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했다(위의 책, 158면). 필자도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합쇼체라 하지만 연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사이에도 쓰이고 있었음을 일찍부터 보고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화자가 분명히 '가잽소/가깁소', '가게오/ 가기오', '가자' 혹은 '가기시오/가기쇼', '가기오/ 가교', '가자'와 같이 중간등급에 '가기오'가 있으므로 '가깁

30) 例: 머리르 깎읍소.(머리를 깎으시오.)

소'나 '가기시오'는 등급체계에서 '가기오'보다 위의 등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7. 상대경어법

상대경어법은 문장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그 문장을 듣는 청자에 대해 언어적으로 대처하는 경어법을 말하는데 이는 (종결)어미에 의해 나타난다(주2) 참조). 한국어의 상대경어법의 등급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격식체로 불리우는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의 4등급 체계와, 비격식체로 불리우는 '해요체, 해체'의 2등급 체계로 분류해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縱的인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화체로서 공적인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어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자는 橫的인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한 말씨이자 20세기 후반부터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일상 대화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어법으로 알려져 있다. 高永根(1999:388-397)에 의하면, 개화기 자료에서는 합쇼체가 보편적이었으나 1920~30년대에는 '요(해요체)'통합형이 우세해지면서 현대 前期國語의 하오체, 합쇼체는 해요체의 형식으로 치환되어 간다고 한다.³¹⁾ 서정수(1996:1020)는 종래의 상하관계에서 점차 횡적 친소관계에 따른 표현으로 바뀌면서 등급 차이가 간소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현대의 말씨는 높낮이의 구분보다는 다양한 친소 관계나 정감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추측하였다. 현재 서울방언에서 하오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해요체로 치환되어 가는 현상은 이러한 추측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정수(1984:232)는 종래의 하오체는 '해요'와 '하오'로 갈라져서 전자는 '합쇼'와 대등한 표현 형식이 되고 후자는 제자리에 남았으나 적용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마침내 그 설 자리마저 잊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서울 방언의 하오체, 합쇼체는 해요체로 치환되는데,

31) 팔호안의 내용은 필자에 의함. '요'통합형은 주로 어린이나 여자계층에서 쓰이는 상황이라 했다.

하오체는 그 전부가 해요체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요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하오체 용법 그대로 남아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귀납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여 현재 서울방언의 하오체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쓰는 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³²⁾

본고의 제목은 延邊方言의 하오체이며, 연구목적은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 서울방언에 하오체는 해요체로 치환되어 있으므로 두 방언의 하오체를 대조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상관적인 장면에서 누가 누구에게 사용한 표현인가를 대조하면 어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상이점에 대해서는 상술한 변화를 참고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본론에서 서울방언의 하오체를 다룬 高永根(1974b)을 인용하면서 대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高永根(1974a)에 따르면, 이 자료는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동안 출간된 對譯會話集, 신문학자료, 서울 출신 작가의 작품집 등을 주요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³³⁾ 즉, ‘준-구어 자료’를 다룬 논문으로서 본고의 ‘순수-구어 자료’와는 자료 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울방언의 ‘순수-구어 자료’를 보여주는, 특히 하오체를 다룬 논문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자료를援用하기로 한다.

高永根(1999:389)은, 준비법이란 화자와 청자가 친족, 계급 내지 사회적 지위, 연령에 있어 준비·주종·상하의 관계에 있을 때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결어법 중의 하나라고 간주될 수 있음을 제시한 뒤 해라체

32) 이익섭·이상억·채완(1997)에 의하면 하오체는 하게체와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쓰되 그 아랫사람을 정중히 대하는 말투로서 그 정중함의 정도가 하게체보다 한 등급 위인 말투라 한다.

33) 高永根(1974a)은 이 자료들을 서울방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爾弼在(2009)는 高永根(1974a)의 (1)어서 문 좀 열소(雉岳:134), (2)겹옷이 잘라져서 못 입겠으니 새로 한 벌 지어 주소(國分:154), (3)남의 집 앞에서 코 풀거나 춤 밟거나 하면 실례가 되니 조심 허소(國分:51)와 같은 예문 중 ‘열소, 주소, 허소’ 등은 서울방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爾弼在(2009)의 이러한 내용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미 (1), (2), (3)과 같은 활용형은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활용형은 延邊方言과의 대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는 아주 낮춤, 하게체는 보통으로 낮춤, 하오체는 보통으로 높임, 합쇼체는 아주 높임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라체를 받으면 유년, 하게체를 받으면 성년, 하오체를 받으면 중년, 합쇼체를 받으면 노년이라고 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참고로 아래에 延邊方言의 상대경어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延邊 지역을 볼 때, 어학 전공 연구자를 제외하면 이 지역의 방언화자는 상대 경어법을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로 부르며 경어법을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대신 방언화자 사이에는 공통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대경어 등급을 구분하는 명칭이 존재한다. 방언화자의 언어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예예(한다), 야야(한다), 야자 / 응응(한다)’인데, 대체로 3등급 체계로 설명된다.³⁴⁾ 그런데 A氏의 경우는 ‘예예(한다), 야야(한다), 오오(한 다)’라고 불렸으며 ‘오오(한다)’란 표현이 다른 방언화자에 비해 다르게 나타났다. A氏는 이 3등급체계를 ‘높은 등급’, ‘중간등급’, ‘낮은 등급’이라고도 했는데, ‘높은 등급’은 조부모에게 쓰는 말이고, ‘중간등급’은 兄/姉에게 쓰는 말이며, ‘낮은 등급’은 아이들한테 쓰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연령 차이로 말하면 ‘높은 등급’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은 손위 대상에게, ‘중간등급’은 보통 2~3歲 손위인 대상에게, ‘낮은 등급’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은 손아래 대상에게 쓰이는 말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 3등급 체계를 ‘합쇼체, 하오체, 해라체’로 부르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미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대조의 과정에서 高永根(1974b)의 논의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日本 白水社에서 발행한 『コスモス朝和辭典』에 일람표 형식으로 한국의 사전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1) 상대경어법(하오)

우선 高永根(1974b)의 예문을 제시한 후, 延邊方言에서 조사된 예문도 제시하면서 대조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밑줄은 필자에 의함).

34) 박경래(2003)는 실제로 방언화자의 이러한 용어를 채용해 상대경어법 등급을 ‘예예체, 야야/양양체, 응응/야자체’로 불러 분류하였다.

⑦ 〈서울방언〉

(a) (결혼한 오빠에게) 오빠 이게 무슨 짓이유? 큰일 났소. 어서 들어갑시다.

(上同:99)

(b) (손위의 누이에게) 대문밖에 고리짝 하나 갖다 놨우. 디려 오리까?(織女上:360)

⑦' 〈延邊方言〉

(a) (女28歲→오빠에게) 저 얘기 열매 곱소. 오빠도 빨리 한나 낸소.

(b) (男24歲→兄/姉에게) 아장아장 거러 가는거 보오.

(c) (여동생→언니(A氏)에게) 그래두 그냥 나느 언니 생가기 마니 나우.

⑦은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인데, ⑦(a)는 여동생이 오빠에게, ⑦(c)는 남동생이 누나에게 쓴 표현이다. 延邊方言에서도 이와 똑같은 용법이 확인된다. ⑦'은 延邊方言의 경우인데, (a)는 여동생이 오빠에게, (b)는 남동생이 兄/姉에게, (c)는 나이든 여동생이 언니(A氏)에게 쓴 표현이다. A氏에 의하면 ‘하오’는 대체로 자기보다 나이가 3살가량 연상인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 한다.³⁵⁾ 延吉方言의 조사 결과인 〈표 3〉을 보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兄/姉에게 쓰는 어미는 ‘-오/소’로 나타났다. 예외 3명은 ‘-ㅁ다mda(-ㅂ니다)', '-쇼sjo(-십시오)', '-아요ajo'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자의 연령이 화자에 연령에 비해 아주 웃사람인 경우에 쓰인 표현이라 추측된다.³⁶⁾ 『コスモス朝和辭典』에 의하면, 兄/姉에게 쓰는 어미는 연령차가 적으면 어미 ‘-이’를 쓰고, 연령차가 많으면 어미 ‘-어요’를 쓰며, 연령 차이가 있고 응석부리는 말투로 ‘-오, 우’를 쓰기도 한다고 했다. 즉 서울방언의 경우 나이 차이가 많으면 어미 ‘-어요’를 쓰고 나이차이가 적으면 ‘-어’를 쓴다는 것과 대비해 볼 때, 延吉方言의 경우 나이 차이가 많으면 어미 ‘-ㅁ다(-ㅂ니다)', '-쇼/시오(-십시오)', '-아요'로 나타나고 나이 차이가 적

35) 화자는 일반적으로 ‘하오’는 2, 3살 정도 연상에게 쓴다고 말하는데 A氏의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형제자매간의 나이 차이가 2, 3살 정도인 것이 보통일 것이다. 실제는 나이 차이가 더 많은 형제자매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화자의 설명을 그대로 적는 걸로 하고, 이상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6) ‘-ㅁ다mda(-ㅂ니다)', '-쇼sjo(-십시오)’는 延吉咸鏡北道 방언화자에서 많이 쓰이는 어미이며, ‘-아요ajo’는 延吉方言에서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어미이다. 박경래(2003:52-53)에 의하면, 延邊 정암촌의 방언(충청북도방언+함경북도방언)에는 ‘떠 줘요, 시켜줘요, 잡수세요’ 등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합쇼체(예예체)’에 해당한다고 했다.

으면 어미 ‘-오’로 나타난다. 이는 어미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상대경어법의 선택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많으면 더 대우하는 어미를 쓰고, 반대로 나이차이가 적으면 조금 덜 대우하는 어미를 선택하는 등 어미의 선택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 방언에서는 ‘-오, -우’의 소설을 겪는 동시에 ‘-어요’가 나이 차이가 많은 상대에게 쓰는 어미로 새롭게 등장하는데, 延吉方言에서 이러한 이행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延吉方言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에게 ‘-쇼/시오(-십시오)’를 씀과 동시에 ‘-아요’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금후 ‘-어요’를 쓰는 이행현상은 (현지의 언어 변화를 고려할 때) 시간상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 ⑧ 〈서울방언〉 (남편(夫)→아내(妻)에게) 거기 앉우.(織女下:59)
- ⑧' 〈延邊方言〉 (a) (男33歲→妻에게) 식사하기우.
 (b) (女58歲→남편(夫)에게) 밥 먹기오.
 (c) (女38歲→남편(夫)에게) 아침 잡수쇼.(잡수시오)(-십시오)

⑧은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쓴 표현이다. 延邊方言에서도 이와 똑같은 쓰임이 확인되는데, ⑧'(a)에서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쓴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延吉方言 화자의 경우 남편은 예외 없이 ‘아내에게’ 모든 어미를 ‘-오/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⑧'(b)에서 보여주듯이 나이든 아내가 남편(夫)에게 ‘-오/소’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아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즉 젊은 아내는 남편에게 ⑧'(c)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⁷⁾ 후술하지만 ‘잡수쇼’는 하오체의 어미가 아니다. 현재 서울방언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미 ‘-어’를, 아내는 남편에게 남의 앞에서는 어미 ‘-어요’를, 부부 둘만이 있는 사이에서는 어미 ‘-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37) 〈표 3〉에서는 28歲의 아내가 남편에게 ora(오라)를 사용한 것으로 이것은 동급생 커플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말 쓰임도 자연히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⑨ 〈서울방언〉

(a) (과년한 딸이 아버지에게) 응...어머니가 정말 살았소?(血의 淚 I :129)(b)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할머니 으셨우?(朴珍 끝없는 사랑)

⑨' 〈延邊方言〉

(a) (女48歲→부모에게)

혹씨 다른 이리 일씨 모도지 안소?(혹시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지 않소?)(b) (男54歲→母에게) 어머니 뜨겁소?(-소?)(어머니 뜨겁소?)(c) (男20歲→부모에게) 장무리 좀 뜨겁잽까?(-ㅂ니까?)(국이 좀 뜨겁니 않습니까?)

⑨는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⑨(a)는 과년한 딸이 아버지에게 쓴 표현으로서 ‘하오체’의 예문이다. 延邊方言에도 이와 비슷한 용법이 ⑨'(a)에 나타난다. 필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에게 〈하오체〉를 더 쓰는 경향을 보였다.³⁸⁾ 아마 이는 친소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딸과 어머니 사이,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친소 정도를 비교할 적에 동성이라는 점만 보아도 딸이 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더 많을 것이고, (아들에 비해) 자연히 더 친숙할 수 있다. A氏에 의하면, 사이가 가까울수록 높은 말은 덜 쓰고 중간 등급(하오체/야야한다)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듯하다.³⁹⁾ 현재 서울방언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쓰는 어미는 ‘-어요’이고 어머니에게 쓰는 어미는 ‘-어요’ 혹은 ‘-어’를 병용해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38) 비슷한 보고는 千惠蘭의 연구(2005)에서도 보이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부모에게 ‘하오’를 쓰기 시작하는 현상은 30대에서 많이 보이고, 특히 어머니에게 많이 쓰는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한다.

39) A氏는 어린 자식은 어머니에게 ‘하오’를 쓸 수 있고, 동시에 ‘예예(합쇼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氏는 어린 자식은 어머니에게 ‘예예(합쇼체)’가 기본이라 했다. 필자의 경우는 어릴때 ‘예예(합쇼체)’를 썼다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 가족의 상황이 다를지 모르나 延吉方言(30명)의 조사에서는 부모에게 쓰는 말은 ‘하시오(-십시오)’가 일반적이고, ‘하오’는 적게 나타난다. 즉 가정의 습관에 따라 ‘하오’와 ‘하시오(-십시오)’는 나름대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⑩은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⑩'은 延吉方言의 경우
인데 똑같이 모두 같은 '하오'로 나타난 경우이다. 延吉方言에서 남편이 아내의
형제에게 쓰는 상대경어법은 아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는 후술하는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사위는 손위 처남, 처형에게
'하오'를, 손아래 처남, 처제에게는 보통 〈해라체〉를 쓴다.⁴⁰⁾ 시누이가 손위 올케
에게 '하오'로 대우하는 데 반대의 경우도 '하오'이다. 韓美卿(1991:217)에 의하
면, 서울방언의 경우 아내 형제의 상하관계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내의 연령이
기준이 되어, 사위는 손위 처남에게는 어미 '-어요'를, '손아래 처남에게'는 어미
'-어'를 쓴다고 한다. 그리고 손위 올케에게는 어미 '-어요'를, 반대의 경우도 어
미 '-어요'를 쓴다고 한다.

- ⑪ 〈서울방언〉

 - (a) (사장이 사원에게) 일이나 잘 허우. 나도 앞으로 내 힘껏은 후원하리다.
(華想高:364)
 - (b) (刑事部長이 피의자에게) 영감 나이 몇이요? 오십은 되었겠구려.(三代:378)

⑪' 〈延邊方言〉

 - (a) (사장→직원에게) 래이례 가오.(내일에 가오.)
 - (b) (30대 경찰이 나이가 비슷한 여성에게) 호구부르 간구 오오.(戶口簿를 가지고 오오.)

⑪은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며 ⑪'(a)은 延吉方言의 경우인데, 같은 상황에서 '하오'가 쓰임 사례이다. ⑪'(b)의 '刑事部長이 피의자에게'

40)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방언화자의 어미 사용 이행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자식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게 ‘하오’를 쓴다거나,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하오’를 쓰는 현상, 나이 든 아내가 남편에게 ‘하오’를 쓰는 현상 등은 모두 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사위도 나이든 손아래 처남(처제)에게는 경우에 따라 ‘하오’를 병용해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금후의 조사를 기약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아닌 경우라면 ⑪'(b)의 예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延邊方言에서의 직장 내 하오체의 쓰임에 관해서는 千惠蘭(2005)이 소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아주 연상인 상사>에게는 친밀한 사이이면 쓰는 경우가 있으나 소원한 사이이면 절대 쓸 수 없으며 <3~4歲 연상인 상사>와 <3~4歲 연하인 상사>에게는 친소와 상관없이 모두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래 <표 4-1>에서는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 ⑦부터 ⑪까지를 통해 본 <하오체>의 쓰임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서울방언을 소개한 韓美卿(1991)을 참고하며 밝힌 뒤 같은 상황에서 延吉方言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정리해 비교해보기로 하겠다. 아래의 표에서 진하게 되어 있는 칸은 합쇼체임을 나타낸다.

<표 4-1> 高永根(1974b)의 예에서 본 <하오체>와 현재 서울 방언, 延吉方言과의 비교

No	화자→청자	高永根(1974b) (자료:1893년~1938년)	韓美卿(1991) (현재 서울 방언)	延吉方言
1	弟, 妹→兄, 姉(例7)	결혼한 오빠에게 '-수' 손위의 누이에게 '-우'	연령차이 많으면 '-어요'	연령차이 많으면 '-쇼/시오' (-십시오)
			연령차이 적으면 '-어'	연령차이 적으면 '-오/소' 노년층에서 서로 '-오/소'
2	夫→妻(例8)	'-우'	'-어'	'-오/소'
3	아들, 딸-부모(例9)	과년한 딸-父 '-소' 어린 아들→母 '-우'	父에게 '-어요'	어린 자식→부모 '-쇼/시오' (-십시오)
			母에게 '-어요/어'	나이든 딸→母(아들) '-오/소'
4	손위 처남에게(例10)	'-소'	'-어요'	'-오/소'
5	시누이→손위 올케(例10)	'-수'	'-어요'	'-오/소'
6	사장→사원(例11)	'-우'		經理→직원에게 '-오/소'
7	刑事部長→피의자(例11)	'-오'		경찰→여성에게 '-오/소'

〈표 4-1〉에서 보여주듯이 高永根(1974b)의 예문에서 〈하오체〉로 쓰이던 어미는 현대 서울방언에서 이미 〈해요체〉로 변화되었다. 이와 반대로 延吉方言은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과 같이 상대경어법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No.3의 延吉方言에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쓰는 어미는 일반적으로 ‘-쇼/시오(-십시오)’이며,⁴¹⁾ 아버지에게 쓰는 경우는 아주 적고 딸이 어머니에게 쓰는 경우가 더 많다.

高永根(1974b)의 예문으로만 延吉方言의 상대경어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日本 白水社의 『コスモス朝和辭典』에 수록된 한국어(서울방언)의 〈하오체〉, 〈하게체〉, 〈해요체〉의 쓰임을 통해 延吉方言의 ‘하오’의 쓰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 4-2〉는 『コスモス朝和辭典』의 〈하오체〉의 내용과 延吉方言의 경우를 정리해서 적은 것이다. 〈표 4-1〉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コスモス朝和辭典』의 내용을 최대한 인용해 검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은 병용의 의미로 쓰임).

〈표 4-2〉 『コスモス朝和辭典』에 수록된 〈하오체〉의 쓰임에서 본 延吉方言과의 비교

No	『コスモス朝和辭典』서울방언 〈하오체〉	延吉方言 〈하오체(-오/소)〉, 〈합쇼체(-쇼/시오)〉
1	a) 가족에서, 친척에서	
2	弟, 妹→兄, 姉(연령차이가 있을 경우, 옹석부림) [해요체]	연령차이 많으면 ‘-쇼/시오’ (-십시오) 연령차이 적으면 ‘-오/소’ 노년층에서 서로 ‘-오/소’
3	夫→妻(昔)[반말]	‘-오/소’
4	b) 학교에서	
5	(대학) 하급생→상급생	‘-오/소’
6	(대학) 후배선생→선배선생(친한사이, 중 년이상)	후배(女) 선생→3~4歳 연상 선배(男) 선생/연령차이 가 아주 많은 연상 ‘-쇼/시오’(-십시오) 후배(男) 선생→3~4歳 연상 선배(男) 선생 ‘-오/소’
7	c) 회사에서	
8	상사→남성부하	‘-오/소’ (부하가 연하인 경우)(〈표 4-4〉를 참조)
9	상사→여성부하	‘-오/소’ (부하가 연하인 경우)(〈표 4-4〉를 참조)
10	여성부하→상사, 연상의 친한 사원[반 말]	① 여성부하→연령 차이가 아주 많은 남성상사 ‘-쇼/시오’(-십시오)

41) 千惠蘭(2005:63)에 의하면, ‘자식→아버지(父)에게’의 쓰임은 30대부터 50대에서 확인되며, 어머니(母)에게의 쓰임은 20대부터 60대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친하지 않는 사이면 '-쇼/시오'(-십시오)
②	여성부하→3~4歳 연상인 남성상사 아주 친한 사이(오빠라 부를수 있으면) '-오/소'	
③	여성부하→연령 차이가 아주 많은 여성상사 '-쇼/시오'(-십시오) 아주 친한 사이이면 '-오/소'	
④	여성부하→3~4歳 연상인 여성상사 '-오/소'	

〈표 4-2〉에서 보여주듯이 서울방언의 〈하오체〉의 쓰임과 延吉方言의 〈하오체〉의 쓰임은 대부분 대응한다.

延吉方言의 〈하오체〉는 서울방언의 〈하게체〉와 대응되기도 한다. 〈표 4-3〉에서 『コスモス朝和辭典』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4-3〉 『コスモス朝和辭典』에 수록된 〈하게체〉의 쓰임에서 본 延吉方言과의 比較

No	『コスモス朝和辭典』 서울방언<하게체>	延吉方言<하오체(-오/소)>, <합쇼체(-쇼/시오)>
1	a) 가족, 친척	
2	장인, 장모→사위(婿)	'-오/소'
3	손위 처남→사위(婿)	'-오/소'
4	b) 학교에서	
5	연배의 남성교사→남녀학생	(대학)'-오/소'
6	손위의 교사→손아래 교사[해요체][반말]	'-오/소'

〈표 4-3〉에서 보여주듯이 서울방언에서 〈하게체〉로 쓰이는 경우, 延吉方言에서는 모두 〈하오체〉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延吉方言의 〈하오체〉는 또한 서울방언의 〈해요체〉와 대응되기도 한다. 〈표 4-4〉에서 『コスモス朝和辭典』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4-4〉 『コスモス朝和辭典』에 수록된 〈해요체〉의 쓰임에서 본 延吉方言과의 비교

No	『コスモス朝和辭典』 서울 방언<해요체>	延吉方言<하오체(-오/소)>, <합쇼체(-쇼/시오)>
1	a) 가족, 친척에서	
2	아들, 딸→父	어린 자식 '-쇼/시오'(-십시오) 자식(30대~50대)→父에게 ['-오/소'] 아들보다 딸이 '하오'를 쓰는 경향이 있음.
3	아들, 딸→母[반말]	'-쇼/시오'(-십시오) 자식(20대~60대)→母에게 ['-오/소'] 아들보다 딸이 '하오'를 쓰는 경향이 있음.
4	弟, 妹→兄, 姉(연령차이가 있을 경우)[하오체]	연령 차이가 많을 경우['-쇼/시오'(-십시오)] 연령차이 적으면 '-오/소' 노년층에서 서로 '-오/소'
5	손아래 친척→손위의 친척[하오체]	연령 차이가 많을 경우['-쇼/시오'(-십시오)] 연령 차이가 적을 경우'-오/소'
6	손아래 친척→조부모	'-쇼/시오'(-십시오)
7	며느리→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남편의 남동생, 여동생	'-쇼/시오'(-십시오) '-오/소'
8	兄→季嫂氏	'-오/소'
9	婿→손위 처남, 처형	'-오/소'
10	처형→婿	'-오/소'
11	손아래 처남→婿 처제→婿	'-오/소' '-쇼/시오'(-십시오)
12	妻→夫(주위에 사람이 있을 적)[반말]	'-쇼/시오'(-십시오) 妻(60대)→夫 '-오/소'
13	b) 학교에서	
14	어린이(子供)→보모(保母)	'-쇼/시오'(-십시오)
15	(소학교) 선생→여럿 어린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쇼/시오'(-십시오)
16	(소학교) 하급생→상급생	하급생(10대)→상급생 '-오/소'
17	(중학교, 고교, 대학) 하급생→상급생(최초)[반 말]	'-오/소' (나이가 비슷하면[해라체])
18	(대학) 연하의 동급생→연상의 동급생	'-오/소' [해라체]
19	(대학) 여성교사→학생들(공적인 장소에서)	'-쇼/시오'(-십시오)
20	(대학) 손위 교사(男)→손아래 교사(공적인 장소에서)[하계체]	'-오/소'
21	(대학) 손아래 교사(후배)→손위의 교사(선배) [합쇼체]	① 손아래 교사→손위 교사 연령 차이가 아주 많음 '-쇼/시오'(-십시오) 아주 친한 사이면 ['-오/소'] ② 손아래 여성교사→3~4歲 연상 남성교사 '-쇼/시오'(-십시오), 아주 친한 사이(오빠라 부를수 있으면) '-오/소' ③ 손아래 여성교사→3~4歲 연상 여성교사 '-오/소'
22	(대학) 후배의 교사(女)→친하지 않는 선배의 교사	同上 (No21)

23	(대학) 남성의 교사→동배의 교사[합쇼체]	'-오/소'
24	c) 회사에서	
25	상사→여성부하(연하)[하오체]	'-오/소'
26	남성사원→친하지 않는 남성사원 [합쇼체]	'-오/소' 연령 차이가 아주 많음 ['-쇼/시오'(-십시오)]
	남성사원→동년대의 여성사원[합쇼체]	'-오/소'
27	여성사원→친하지 않는 여성사원[합쇼체]	3~4歲 연상 '-오/소' 연령 차이가 아주 많음 ['-쇼/시오'(-십시오)]
	여성사원→동년대의 남성사원[합쇼체]	'-오/소' 친하지 않는 사이면 ['-쇼/시오'(-십시오)]
28	여성부하→상사, 친하지 않는 사원(연상)	여성부하→(女) 상사 '-오/소' ['-쇼/시오'(-십시오)] 여성부하→(男) 상사 ['-쇼/시오'(-십시오)], 친한 사이(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 '-오/ 소'
29	d) 바깥에서	
30	중년여성→모르는 연상의 사람	'-오/소' 상대가 남성 혹은 연령 차이가 아주 많으면 '-쇼/시오'(-십시오)
31	중년여성→모르는 젊은 여자[반말]	'-오/소' [해라체]
32	젊은 여성→모르는 연상의 사람	3~4歲 연상 '-오/소' 연령 차이가 아주 많으면 '-쇼/시오'(-십시오)
	젊은 여성→모르는 젊은 여자(남녀)	'-오/소'
33	젊은 남성→모르는 연상의 사람, 젊은 남성→모르는 젊은 여자(남녀)	'-오/소' 연령 차이가 아주 많으면 '-쇼/시오'(-십시오) '-오/소'
34	e) 가게에서	
35	중년의 손님(남녀)→가게의 종업원(친하지 않음, 젊음)	'-오/소'
36	젊은 여성객→가게의 종업원(연상, 연하)	'-오/소'
37	f) 택시에서	
38	여성, 젊은 남성→택시 운전사	연령 차이가 적으면 '-오/소' 연령 차이가 아주 많으면 '-쇼/시오'(-십시오)

<표 4-4>에서 보여주듯이 서울방언에서 <해요체>로 쓰이는 상황이 延吉方言에서는 거의 <하오체>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화자와 청자의 연령차이가 아주 많으면 '-쇼/시오'(-십시오)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할 때 延邊方言에서 '하오'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친척에서

10대가 되는 弟(妹)이 兄(姊)에게 쓰기 시작하는데, 연령차이가 아주 많으면

합쇼체를 병용한다. 자식은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게 ‘하오’와 합쇼체를 병용해 쓴다. 父에게 ‘하오’를 쓰기 시작하는 자식의 연령은 ‘30대~50대’이고, 母에게 쓰기 시작하는 자식의 연령은 ‘20대~60대’이다. 특히 딸은 아들에 비해 어머니에게 ‘하오’를 쓰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시아버지(시어머니)는 시집오기 전부터 며느리에게 ‘하오’를 쓰는데, 시아버지의 경우는 며들아기를 귀여워하는 뜻으로 〈해라체〉를 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며느리에게 물은 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인(장모)이 사위에게 ‘하오’를 쓰는데, 현대 서울 방언에서는 〈하게체〉이다. 이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아버지(시어머니)와 장인(장모)이 들어온 사람으면 모두 〈하오체〉를 쓴다. 손위 처남→사위(婿)에게 ‘하오’로 대우하는데, 이는 서울 방언에서 〈하게체〉에 해당하는 용법이다.⁴²⁾

며느리는 남편의 동생/손아래 시누이에게 ‘하오’로 대우하고 반대의 경우도 ‘하오’이다. 며느리로 볼 때 남편형제의 상하관계는 남편의 연령을 기준으로 어미를 선택하는데, 남편의 동생에 대하여서는 〈해라체〉를 쓰지 않는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 〈해요체〉로 나타나는데 延吉方言과 비교할 때 경어의 사용원리는 같다고 볼 수 있다.⁴³⁾ 弟이 季嫂氏에게, 사위가 손위 처남/처형에게, 처형이 사위에게, 손아래 처남이 사위에게 ‘하오’로 대우한다. 서울 방언에서 모두 〈해요체〉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延邊方言에서는 〈표 3〉에서 확인되듯이 예외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오’를 쓴다. 노년층(60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오’를 쓰는 어미의 이행현상이 있다. 서울방언에서 옛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하오’를 썼음은 〈표 4-1〉에서 확인한 바 있고, 현재는 〈반말/해체〉로 나타나는 경우이다(〈표 4-2〉를 참조).

42) 필자는 아직 延邊方言에서 하게체를 사용하는 화자율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B氏에 의하면 ‘하게’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지 실제 방언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하게체〉를 조사하기 위해 많은 화자와 면접도 해봤지만 이에 만족할 만한 내용은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延吉方言을 다룬 방재암(2008)은 〈하게체〉를 설정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그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43) 즉,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시동생/손아래 시누이에게 〈해요체〉로 대우하고, 반대의 경우도 〈해요체〉인데, 延吉方言의 경우는 모두 ‘하오’로 나타나므로 경어법 운용원리가 같다. 延邊方言에서 며느리가 아주머님, 형님에게 쓰는 어미는 남편에게 쓰는 어미와 같은 ‘-쇼/시오(-십시오)’이다.

(2) 학교에서

延邊方言의 ‘하오’의 쓰임을 학교 내에서 관찰해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하급생(10대)이 兄(姉)이라 부를 수 있는 상급생에게는 모두 ‘하오’를 쓰고, 연령 차이가 아주 많으면 <합쇼체>를 병용한다. 반대로 연령 차이가 적고 아주 친한 사이이면 <해라체>를 쓴다. <해라체>는 화자가 청자에게 묻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에서 교사간의 쓰임은 회사에서의 쓰임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므로 아래 (3)을 참고하기 바란다.

(3) 회사에서

延邊方言에서 회사 내 ‘하오’의 쓰임은 중요한 구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기술의 편의 상 사원의 연령을 20歳 이상으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남성/여성→연령차이가 아주 많은 연상 남녀사원(상사)】 <합쇼체>/친한 사이이면 ‘하오’

【남성→3歳 연상 남녀사원】 ‘하오’

【남성→동급 남성사원】 ‘하오’/ 친한 사이이면 <해라체>(상대방에게 물어 본 후 씀)

【남성→동급 녀성사원】 ‘하오’/ 친한 사이이면 <해라체>(상대방에게 물어 본 후 씀)

【남성→3歳 연하남성사원】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하오’/친한 사이이면 <해라체>(상대방에게 물어 본 후 씀)

【남성→3歳 연하여성사원】 ‘하오’/친한 사이이면 <해라체>(상대방에게 물어 본 후 씀)

【여성→연령차이가 아주 많은 연상 남녀사원(상사)】 <합쇼체>/친한 사이이면 ‘하오’

【여성→3歳 연상 남성사원】 <합쇼체>/친한 사이(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 ‘하오’

(화자의 연인/남편 연령보다 연하이면 더 자연히 쓸 수 있음)

【여성→동급 남성사원】 <합쇼체>/친한 사이이면 ‘하오’

【여성→동급 녀성사원】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하오’/친한 사이이면 <해라체>(상대방에게 물어 본 후 씀)

【여성→3歳 연하남성사원】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하오’/친한 사이이면 <해라체>(상대방에게 물어 본 후 씀)

【여성→3歳 연하여성사원】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하오’ / 친한 사이이면 〈해라체〉(상대방에게 물어본 후 씀)

延邊方言에서는 회사(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상하관계는 권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우선 화자와 청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 그 다음 남녀라는 성별상의 차이가 있고, 친소관계가 상대경어법의 등급을 결정한다. 입사해서 남성은 언어선택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하여 여성은 연애/결혼을 의식하면서부터 청자가 남성인 경우 언어사용에 많은 변화를 보인다.

2) 상대경어법(하시오)

‘하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高永根(1974b)의 예문을 참고하면서 延邊方言의 경우를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서의 논의는 한국에서 ‘하시오’를 〈하오체〉로 다루고 있지만 延邊方言의 경우는 ‘하시오’를 〈하오체〉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⑫ 〈서울방언〉

- (a)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영감, 글세 그 장난을 허슈?(川邊:80)
- (b) (아내가 남편에게) 방울이 보고 싶지 않으슈? 데려 오리까?(織女上:107)
- (c) (식객(최참봉)이主人아들에게) 요새 어떠슈? 살살 혼자만 다니지 말고 어떻게 나같은 놈두 데리고 다녀보구려. 과히 해로울 건 없으리다.(三代:207)

⑫' 〈延邊方言〉

(B氏가 兄에게) 형님 어디로 가시오?

즉, ⑫는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으로, ‘妻→夫에게’, ‘식객이 →주인 아들에게’ 사용한 사례이다. ⑫'는 延邊方言의 경우로, ‘남동생이→兄에게’ 쓴 표현인데 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 그리고 약간의 연령 차가 있는 경우이다. 의문문에 ‘하시오’가 존재함은 千惠蘭(2005)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하오’가 7,400회 정도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하시오’는 20회 정도의 낮은 빈도

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직장에서 5회, 가정 내에서 6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11회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⑬ 〈서울방언〉

- (a) (관료적인 말투) 좀 나오시오./각오하시오./그쯤 아시오.
- (b) (執達吏가 주인아들에게) 우리현테 폭행을 허는 경우에는 (중략) 삼년 이하의 징역을 갈테니 그리 아시오.(織女下:96)

⑬' 〈延邊方言〉

- (a) (공무원이 B氏에게) 걱정하지 말고 이젠 도라가시오.
- (b) (손자의 담임선생이 A氏에게) 아즈마이 그런거 걱정하지 마시오.
- (c) (A氏가 방언 조사에 온 대학교 선생님에게) 그게 가 맡차보시오.
- (d) (A氏가 촌장에게) 촌자이가두 이거 자시오/자쇼. 이래다.

⑬은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으로, 모두 관료적인 말투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延邊方言의 ⑬'(a)가 거의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 이외에 延邊方言에서는 ⑬'(b)(c)(d)와 같은 쓰임이 확인되는데 화자와 입장에서 볼 때 청자는 모두 대우해주어야 할 상대이다.

⑭ 〈서울방언〉

- (a) (출가한 딸이 부모에게) 순이는 죽던지 살던지 간에 내버려두고 들어가 서 주무시오.(鬼의 聲:6)

⑭' 〈延邊方言〉

- (a) (女37歲→부모에게) 아침 잡수쇼.
- (b) (男49歲→부모에게) 바쁘 잡수시오.
- (c) (女42歲→부모에게) 이쪼그로 으시오.
- (d) (女50歲→남편에게) 이쪼그로 으쇼.

⑭는 高永根(1974b)이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으로, 延邊方言의 보이는 ⑭'(a), (b), (c)의 예문이 똑같은 경우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⑭'(d)는 ‘아내가 남편에게’ 쓴 예문인데 상술한 ⑫(a), (b)의 경우와 같다. 다만 ⑭'(d)은 명령형이고, ⑫(a), (b)는 의문형이라는 점이 의구심이 들지만 화자와 청자의 상황이 일치하고 형태론적으로도 유사하므로 일부러 제시해 두었다.

이상의 ⑫부터 ⑭'까지의 예문을 정리하여 〈표 4-5〉에 기재한다.

〈표 4-5〉 高永根(1974b)의例에서 본 〈하시오〉와 현대 한국어, 延邊方言과의 비교
(-쇼, -시오)

No		高永根(1974b)	한국(현대)	延邊方言
1	妻→夫	'-슈' (의문형)	주위에 사람이 있을적 '-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을적 '-어'	'-쇼/시오'(-십시오)(명령형)
2	兄에게		연령차이가 있으면'-어요' 연령차이가 없으면'-어'	男71歲→兄 '-시오'(의문형)
3	관료적인 말투	執達吏→주인 아들 '-시오' (명령형)		공무원→B氏 '-쇼/시오'(-십시오)(명령형)
4	부모에게	'-시오' (명령형)	父에게'-어요' 母에게'-어요/어'	'-쇼/시오'(-십시오)(명령형)

〈표 4-5〉에서 보여지듯이 高永根(1974b)의 예문과 비슷한 경우가 延邊方言에서도 확인됨을 알 수 있다. No.1의 '妻→夫에게'의 쓰임은 高永根(1974b)에서는 '-슈(의문형)'이고, 延邊方言의 경우는 '-쇼/시오(-십시오, 명령형)'이지만 문체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화자와 청자는 일치한다.⁴⁴⁾ 이와 대비하여 No.4는 문체법, 상대경어법, 어미형태도 완전히 일치한 경우이며, No.3의 경우도 거의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 방언에서는 모두 〈해요체〉 혹은 〈해체〉로 나타난다.

여기서 잠깐 〈표 4-5〉 No.4에서 확인되는 延邊方言의 어미 '-쇼/시오(-십시오)'의 상대경어법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표 4-6〉은 〈표 3〉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적은 것이다.

44) 延邊方言의 '순수-구어 자료'에서 '-소'가 '-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으므로, '-쇼'가 '-슈'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高永根(1974b)의 자료에서는 '-소'와 '-수'는 모두 확인되므로 '-슈'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반대로 高永根(1974b)에 따르면 '-쇼'가 확인되지 않는 대신 '-시오'가 확인된다. 延邊方言에 '-시오'가 존재하고, 동시에 '-쇼/시오(-십시오)'와 같이 교체형으로 나타나므로 이 어미들은 같은 형태라고 판단한다.

〈표 4-6〉 명령(이곳에 오라)

	兄/姉에게	妻에게/夫에게	부모에게
남성	-오(o)	-오(o) (夫→妻)	-쇼(sjo), -시오(sio), -십시오(sips'io)
여성	-오(o)	-쇼(sjo), 시오(sio) (妻→夫)	-쇼(sjo), -시오(sio), -십시오(sips'io)

※ 延吉方言 조사 결과(남녀30명, 17~62歳)

〈표 4-6〉에 나타나듯이 ‘兄/姉에게’와 ‘夫→妻에게’ 쓰인 어미는 모두 ‘-오’이고, ‘妻→夫에게’ 쓰인 어미는 ‘-쇼’, ‘시오’이며 ‘부모에게’ 쓰인 어미는 ‘-쇼’, ‘시오’, ‘-십시오’로 병행해서 나타난다. 특히 ‘-십시오’가 교체형으로 나타나므로 ‘-쇼’, ‘시오’, ‘-십시오’는 모두 〈합쇼체〉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妻→夫에게’ 쓰인 어미가 비록 ‘-쇼’, ‘시오’로만 나타났지만 ‘부모에게’의 쓰임을 보게 되면 ‘-쇼’, ‘시오’가 〈합쇼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인용한 高永根(1974b)의 예문과 7장 2절에서 보았던 延邊方言의 어미를 정리하여 〈표 4-7〉에 적는다.

〈표 4-7〉 하시오/하쇼 hasio/hasjo

No	高永根(1974b)	어미	延邊方言				어미
1	하오체	관료적인 말투	-시오(명령)	六鎮 話者 30 명	공무원→B氏	-쇼/시오(명령)	
2		執達吏→주인아들	-시오(명령)		A氏→사위	-쇼/시오(명령)	
3					B氏→兄	-시오(의문)	
4		식객→주인아들	-슈(의문)		A氏→촌장	-쇼/시오(명령/권유)	
5		아내→남편	-슈(의문)		아내→남편	-쇼/시오(명령/권유)	
6		부인→남편	-슈(의문)		아내→남편	-쇼/시오(명령/권유)	
7		출가한 딸→부모	-시오(명령)		부모에게	-쇼/시오/십시오(명령)	

〈표 4-7〉에서 나타나듯이 高永根(1974b)은 No.1부터 No.7까지의 어미를 모두 〈하오체〉라 하였는데, 이는 현재 서울방언에서는 해요체로 나타나는 어미이다. 〈표 4-6〉에서 이미 확인하였듯 延吉方言에서 ‘-쇼’, ‘시오’, ‘-십시오’는 〈하오체〉가 아니라 〈하오체〉보다 더 높은 등급인 〈합쇼체〉이다. 3장의 선행연구 검토에

서 ‘하쇼’ 혹은 ‘하시오’를 〈합쇼체〉 혹은 〈하오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표 4-7〉을 보면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延邊方言의 No.2, No.4는 〈하오체〉와 똑같은 청자에게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청자가 ‘친하지 않은, 가족이 아닌, 어느정도 대우해주어야 하는 상대’ 임을 공통 요소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延邊方言의 No.1, No.3은 ‘年上에게’, No.5, No.6, No.7은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에게’, 延吉方言(30명)의 조사에선 ‘초면인 연상 사람에게’ 등 친소, 장소와 상관없이 존경해야 하는 나이 차이가 있는 연상의 상대에게 사용되고 있다. 高永根(1974b)은 비록 이러한 형태들을 하오체에서 다루었지만, 延邊方言의 경우를 보면 이는 분명히 하오체보다는 높은 등급이다. 금후 延邊方言을 다룰 적에 이러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⁴⁵⁾

8. 맷음말

중복됨이 없지 않으나 아래에 다시 요약 정리한다.

(1) 하오(hao), 먹소(məksə)

‘하오’의 어미는 음운론적으로 모음어간 뒤에 -오₀, 자음어간 뒤에 -소₀로 나타난다. 선행요소가 -이_i-이면 어미 -오₀는, -이오_{io} 혹은 -이요_{ijo}로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서울방언에서 보이는 *먹으오magio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₀’는 ‘-우u’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소₀’가 구어에서 보편적이다(調查時). 高永根(1974b)에 따르면 ‘-슈’(의문)가 확인되나, 이 방언에서는 ‘-쇼’(명령)가 일반적이다. 방언에서 ‘-시오sio’ 와 ‘-쇼sjo’는 자유변이로서 이형태로 존재한다.

‘하오’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이 가능하며, 권유문은 서울방언에서

45) 延邊方言에서 ‘-쇼’, ‘시오’, ‘-십시오’가 모두 합쇼체이지만, ‘-십시오’가 더 정중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어미로 ‘-쇼’, ‘시오’를 쓰고, ‘-십시오’를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정중한 어미를 쓰면 거리가 먼 느낌이 든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에게도 ‘-쇼’, ‘시오’가 일반적이지만 정중한 장소에서는 아주 존중해야 할 상대가 되기 때문에 ‘-십시오’가 쓰인다고 생각된다.

보이지 않는 하ha-기ki-오o가 확인된다. -기ki-는 방언에서 일인칭복수의 기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음을 확인했다.

‘하오’의 상대경어법은, 高永根(1974b)의 용례를 인용하면서 서울방언 용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延邊方言에서의 ‘하오’의 쓰임은 서울 방언의 그것에 비해 보다 쓰임의 폭이 넓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延邊地域의 하오체는 한국의 하오체나 하게체에 해당하는 용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延邊方言의 ‘하오’는 서울 방언의 <하오체>, <하게체>, <해요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용법임을 밝혔다. 다른 점에 대해 언급한다면, 서울방언에서는 가족, 친척에서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데, 延邊方言에서는 ‘하오’가 일반적이다. 서울방언에서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하게체>를 사용하는데, 延邊方言에서는 <하오체>이다. 하게체가 하오체보다 늦은 시기에 나타난 용법임을 미루어 볼 때 延邊方言은 아직 고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주 크게 다른 점은 延邊方言에서 나이 차이가 아주 많으면 <합쇼체>로 청자를 대우해야 한다는 점인데, 서울방언에서는 모두 <해요체>로 표현되고 있다.

(2) 하시오(hasio)

‘하시오’는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이 가능하다. ‘하시오hasio’의 어미 ‘-시오sio’와 ‘-쇼sjo’가 있고 이것은 이형태임을 <표 3>에서 확인했다. 명령형에는 ‘하시오hasio’, ‘하쇼hasjo’가 있고 권유형에는 ‘하기시오hakisio’, ‘하기쇼hakisjo’가 있다.

상대경어법은 ‘하시오’를 한국에서는 하오체에서 다루고 있으나, 7장 2절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延邊方言에서는 <합쇼체>임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六鎮 전통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현재 도시방언(延吉方言)에서 어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상세한 내용은 6장 3절 2항 참조).

본고는 하오체의 용법을 서울방언과 비교하면서 그 상이점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했다. 특히 상대경어법에 있어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료를 너무 많이 다루는 과정에서 어미의 형

태론적 분석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미미하게 내비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시적 분석 또한 엄두도 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데, 금후에는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주제어 : 연변방언, 하오체, 상대경어법, 종결어미, 등급

투고일(2015. 1. 27), 심사시작일(2015. 2. 2), 심사완료일(2015. 2. 23)

〈참고문헌〉

- 高永根(1999), 『國語形態論研究』(增補版), 서울대 학교출판부.
- 권재일(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순희(2014), 『현대 조선어의 문장종결법』, 역락.
- 남기심 · 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명옥(2012),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종결어미 연구』, 박사학위논문(전남대 대학원).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_____(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 엄춘영(2010), 『延邊方言의 調査와 語尾 연구』, 박사학위논문(충남대 대학원).
- 延邊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02), 『朝鮮語辭典』(上) · (下), 中國: 延邊人民出版社.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론』, 태학사.
- 이익섭 · 이상억 · 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정향란(2008), 『중국 연변 용정 지역 한국어의 곡용과 활용에 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인하대 대학원).
- _____(2010), 『延邊方言의 곡용과 활용』, 한국학술정보.
-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집필조(1985),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민족출판사.
- 최명옥 · 곽충구 · 배주채 · 전학석(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 한국민족대백과사전편찬부(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진건(2003), 『륙진방언연구』, 북경: 민족출판사.
- 고광모(2006), 「-계 𩔗-로부터 발달한 종결어미들」,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61-79.
- 高永根(1974a),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서
울대학교 어학연구소[高永根(1999)에 재수록].
- _____(1974b),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高永根(1999)에 재수록].
- 곽충구(1997), 「연변지역의 함북 길주 명천 · 지역방언에 대한 調査 연구」, 『애산학
보』 20, 학술교육원, 179-274.
- _____(2000), 「六鎮方言의 現狀과 研究 課題」, 『韓國學論集』 34, 한양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327-362.
- _____(2014), 「육진방언의 청자높임법 종결어미: 중국 조선족자치주 육진방언」, 『방
언학』 20.
- 김선희(2013), 「연변 방언 연구: 조사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화』 8,
한민족어문화회, 71-98.
- 박경래(2003), 「중국 연변 정암춘 방언의 상대경어법」, 『이중언어학』 23, 二重言語
學會.

- 방채암(2008), 「연변지역의 한국어 종결어미 연구」, 석사학위논문(대구대 대학원).
- 서향란(2012), 「용정 지역 조선어의 세대별 상대경어법과 그 변화」, 석사학위논문(서강대 대학원).
- 엄춘영(2006), 「연변지역어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 대학원).
- 왕한석(1996), 「언어생활」, 『중국 길림성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俞弼在(2009), 「現代國語 하오체 語尾의 異形態와 交替 條件」, 『語文研究』 37-4.
- 전학석(1998), 「延邊方言」, 『새국어생활』 8-4, 153-180.
- 정향란(2010), 「삼합지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방언학』 5, 139-172.
- 최명옥(2000), 「中國 延邊地域의 韓國語 研究」, 서울: 제1회 국제학술회의 한·중 교류와 상호인식의 자취.
- 梅田博之(1991), 『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 2, 東京: 大修館書店.
- 小倉進平(1927), 『朝鮮語』 2(咸鏡南北道方言), 朝鮮語研究會, 1-24.
- 龜井孝・河野六郎・千野榮一(2005), 『言語學大辭典』 第6卷, 東京: 三省堂.
- 菅野裕臣・早川嘉春・志部昭平・浜田耕策・松原孝俊・野間秀樹・塙田今日子・伊藤英人(1988), 『コスモス朝和辭典』 第2版, 東京: 白水社.
- 福井玲(2013), 『韓國語音韻史の探究』, 東京: 三省堂.
- 韓美卿(1991), 「敬語の用法について」, 『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 2, 東京: 大修館書店.
- 小學館/金星出版社 編(1993), 『朝鮮語辭典』, 東京: 小學館(電子辭典).
- 千惠蘭(2005), 「中國延辺朝鮮語の聞き手待遇について—하오hao体を中心に」, 『社會言語科學』 第8卷 第1号, 57-68.
-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new/about/20years_21.jsp(2014. 10. 20).

〈Abstract〉

The ‘hao’ style of Yanbian dialect

Wu Chun-Ji *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 so-called ‘hao’ style verbal forms found in the Yanbian dialect of Korean, based on a morphological analysis of ‘hao’ style forms used in various types of sentences such as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and propositive sentences and the observation on their uses as addressee honorifics.

The following ar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Firstly the ‘-euro’ forms used in the Seoul dialect was not found in this dialect. Secondly, the range of speech levels represented by the ‘hao’ style forms in this dialect is much wider and covers the ‘hao’, ‘hage’ and ‘haejo’ style speech levels of the Seoul dialect. Also, the speech level of the ‘hasio’ style of this dialect corresponds to the ‘hapsjo’ level, not to the ‘hao’ style, as in the Seoul dialect.

Key Words : Yanbian dialect, ‘hao’ style, addressee honorifics, final endings, speech Level

* Doctoral Program,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ology, The University of Tokyo.